2018. 3. 12

# 달러와 유가

달러와 유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2016년부터 달러의 영향력은 미미이는 원유 시장의 수급 논리가 매크로 변수에 따른 영향력을 잠식했기 때문최근 공급 과잉이 일부 해소되면서 다시 달러와 유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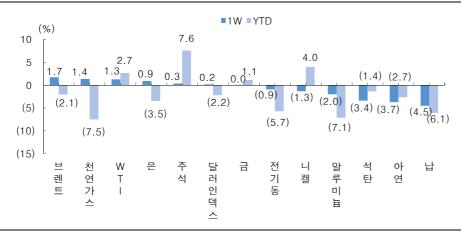
# 다시 달러와 유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시작

일반적으로 달러와 유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달러의 변동은 유가의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달러와 유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시기들을 살펴보면 유가가 매크로 변수 보다는 원유 시장의수급 논리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던 시기였다. 즉 2016년 이후 달러의 영향력이 미미했던 이유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 달러와 유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이는 공급 과잉이 일정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이지만 1985년 사례를 돌이켜 보면 유가 급등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2014년과 같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 달러와 유가간 음의 상관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유가는 상승세를 보인 반면 비철금속 가격은 하락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된 가운데 미국 rig 수가 7주 만에 감소하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사한 가운데 미국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금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안에 서명하면서 비철금속 가격은 하락했다.

### [그림 1] 원자재 주가 수익률(3/5~3/9)



서태종 seotaejong@truefriend.com

# 일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달러와 유가

달러의 가치 변동은 다양한 경로로 유가에 영향을 미침 달러와 유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원유 가격은 달러로 표시되며 전세계 원유 거래량 중 99% 이상이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러의 가치 변동은 다양한 경로로 유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달러의 가치와 유가의 상관관계 일단 원유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경우 같은 양의 원유를 구입할 때 더 적은 달러가 필요하게 된다.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경우 같은 양의 원유를 구입할 때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유가는 하락하고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유가는 상승한다.

원유 수입국의 입장에서 달러 가치 변동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원유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 자국통화로 표시된 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면서 유가는 결국 하락하게 된다. 만약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자국통화로 표시된 유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가는 결국 상승하게 된다.

산유국의 입장에서 달러 가치 변동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 반대로 원유 수입국이 아닌 산유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자국통화로 표시된 원유 판매 수익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결국 생산량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 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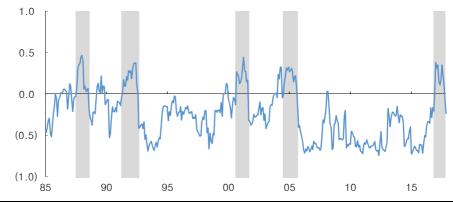
달러 강세는 유가 하락을 야기하고 달러 약세는 유가 상승을 야기 이처럼 달러 가치 변동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론적으로 달러 가치와 유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유가는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유가는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다.

# 대부분의 기간 동안 달러와 유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 달러와 유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던 시기

이처럼 이론적으로 달러와 유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실제로 아래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달러와 유가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그림 2] 달러와 유가의 상관관계



주: 달러와 유가의 12개월 이동평균 상관계수를 계산한 것, 음영 처리된 구간은 상관계수가 양수인 시기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그러나 달러와 유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시기도 존재

그러나 반드시 달러와 유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던 것은 아니다. 위 [그림 2]에서 음영 처리된 시기는 달러와 유가가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시기다. 즉,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달러와 유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는 1985년 이후 총 다섯 번 존재한다.

〈표 1〉 달러와 유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던 시기

시기	달러	유가	내용
1985년~1986년	약세	약세	-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달러는 약세 추세 진입 - 공급 과잉에 따른 점유율 하락을 견디지 못한 사우디가 생산량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포기. 이로 인해 유가는 급락.
1991년~1992년	약세	약세	-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달러는 박스권에서 움직임. 다만 걸프전 종전 이후 약 5개월간 강세를 보인 달러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1992년 중반까지 약세를 나타냄 - 1990년 걸프전으로 인해 두 배 이상 급등했던 유가가 1991년 종전 이후 걸프전 직전 수준까지 급락. 그 후 1998년까지 국제유가는 저유가 시대에 진입
1999년~2000년	강세	강세	- 1999년 유로화 출범을 앞두고 통화 긴축 및 달러 공급 감소 등 강달러 정책을 펼침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로 유가는 계속 하락하기 시작해 1998년 말에는 배럴당 10달러대까지 하락. 다만 1999년부터 아시아의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하면서 유가는 반등 추세 진입
2005년	강세	강세	- 2005년 달러는 강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달러는 추세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시기 -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남. 이들의 원유 수요 증가에 힘입어 유가는 걸프전 이후 14년만에 배럴당 40달러를 돌파
2016년~2017년	2016년은 강세 2017년은 약세		- 2016년부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되고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 다만 2017년에는 유로존 경기 회복, 트럼프발 정치적 리스크,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며 달러 약세 -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6년 유가는 반등. 반 면 미국 산유량 증가에 대한 우려로 2017년 유가는 횡보

자료: Bloomberg, 주요 언론, 한국투자증권

달러와 유가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시기의 공통점 과거 달러와 유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시기를 반추해보면 공통점이 있다. 당시는 대개 환율과 같은 매크로적인 변수가 아니라 원유 시장의 수급 논리에 의해서 유가가 영향을 크게 받던 시기였다.

원유 시장의 수급 논리가 매크로적인 변수에 따른 영향을 잠식 사우디가 생산량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증산에 돌입했던 1985년에는 플라자 합의에 따른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급락했다. 1999년과 2005년에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신흥국들의 원유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가는 강세를이어갔다.

2016년 달러 강세에도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는 상승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은 2014년부터 시작된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과 OPEC 의 증산 경쟁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원유시장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던 시기였다. 2016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였지만 유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달러 가치의 변동보다는 감산 합의 성사 여부와 이에 따른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감이 유가의 방향성을 결정했다.

2017년 달러 약세에도 미국발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로 유가 상승세는 제한 2017년은 2016년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달러는 약세를 보였지만 유가는 크게 오르지 못했다. OPEC과 비OPEC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재차 불거졌기 때문이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달러 약세는 유가의 상승세를 야기하지 못했다.

[그림 3] 2016년 이후 유가와 달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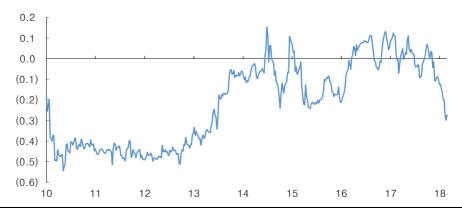


# 하지만 최근 달러와 유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기 시작

# 달러와 유가간 음의 상관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

이처럼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달러 가치 변동과 같은 매크로적인 변수는 유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말부터 달러와 유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 [그림 4] 2010년 이후 달러와 유가의 상관관계



주: 달러와 유가의 12개월 이동평균 상관계수를 계산한 것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이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되었음을 의미

하지만 이것이 유가 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이처럼 달러와 유가의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시작한 이유는 더이상 원유 시장의 수급 논리가 매크로적인 변수의 영향력을 상쇄할 정도로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 동안 원유 시장에 드리워졌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일정 부분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유가 급등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 증가가 나타나게 될 경우 다시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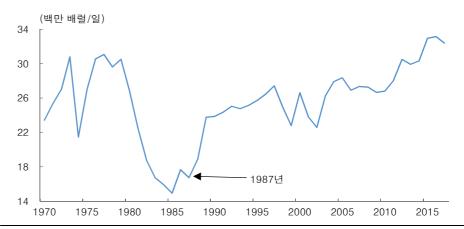
### [그림 5] 1985년과 2014년 이후 유가 흐름



1985년과 2014년 사우디가 증산에 나서면서 유가는 폭락 1985년 이후 유가 흐름은 여러 측면에서 2014년 이후 유가 흐름과 비슷하다. 1985년 말 유가가 폭락한 이유는 사우디가 생산 조절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점유율을 사수하기 위해 증산에 나섰기 때문이다. 2014년 유가 급락의 단초 역시 사우디가 제공했다. 당시 사우디는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의 증산에 따른 점유율 하락을 막고자 경쟁적 증산을 결정했다.

감산 합의에 성공했지만 산유량을 재차 늘리면서 유가는 다시 하락세 이로 인해 1985년 말 유가가 폭락하자 OPEC은 1986년 6월 감산 합의를 시도했다. 이는 비록 실패했지만 8월에 결국 감산 합의에 성공한다. 그 후 유가는 반 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1987년부터 OPEC이 생산 쿼터를 재차 늘리기 시작하면서 산유량이 증가하고 블랙 먼데이가 발생하면서 유가는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비록 달러 약세가 1987년말까지 진행되었지만 유가 상승으로 인한 산유량 증가가 수반될 경우 유가는 다시 하락할 수 밖에 없다.

# [그림 6] OPEC 산유량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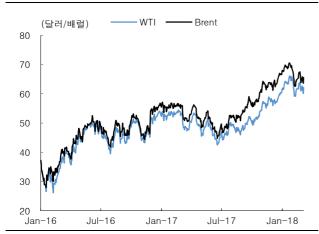
달러와 유가간 음의 상관관계는 지속될 것 다만 2014년과 같이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이 급증하고 사우디를 비롯한 OPEC 이 다시 증산에 돌입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 달러와 유가간 음의 상관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 동안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 달러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과거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 에너지: 글로벌 증시가 반등한 가운데 rig 수가 감소하며 유가는 상승

미국 산유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미국 rig 수가 7주 만에 감소하면서 유가는 하락했다. 지난주 EIA는 미국 산유량이 1,037만 b/d로 9만 b/d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미국 산유량은 주간 단위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그리고 EIA는 올해와 내년 미국 산유량이 각각 1,070만 b/d, 1,127만 b/d로 전월 전망치 대비 11만 b/d, 9만 b/d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미국 산유량이 증가했지만 북미 회담이 성사되고 미국 2월 고용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는 크게 반등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유가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미국 rig 수가 7주 만에 감소한 점 역시 유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 [그림 7] WTI, Brent 유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그림 8] 천연가스, 휘발유 가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그림 9] 석탄 가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그림 10] WTI와 Brent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241만 배럴 증가했다. 반면 휘발유(Motor Gasoline) 재고와 증류유(Distillate Fuel Oil) 재고는 각각 79만 배럴, 56만 배럴 감소했다. 가동률은 전주 대비 0.2%p 상승하며 88.0%를 기록했고 원유 생산은 1,037만 b/d로 전주 대비 9만 b/d 증가했다. 원유 수출은 150만 b/d로 전주 대비 5만 b/d 증가했다.

미국 원유 rig수는 지난 주 대비 4개 증가했다. 최근 저점에 비해서는 480개 증가했으며 전년도 수준과 비교시 179개 많은 수준이다.

### 〈표 2〉 미국 원유 재고 및 생산량

(단위: 천 배럴/일, %p)

구분	이번주	지난주	증감	4주 전	증감	전년동기	증감
тш	2018-03-02	2018-02-23		2018-02-02			
원유 재고	425,906	423,498	2,408	420,254	5,652	528,393	-102,487
휘발유 재고	251,029	251,817	-788	245,474	5,555	249,334	1,695
증류유 재고	137,426	137,985	-559	141,826	-4,400	161,532	-24,106
쿠싱지역 재고	28,180	28,785	-605	36,309	-8,129	64,402	-36,222
원유 생산	10,369	10,283	86	10,251	118	9,088	1,281
원유 순수입	6,505	5,837	668	6,605	-100	7,253	-748
원유 수입	8,003	7,282	721	7,892	111	8,150	-147
원유 수출	1,498	1,445	53	1,287	211	897	601
가동률	88.0	87.8	0.2	92.5	-4.5	85.9	2.1

주: 증감은 이번 주 수치 대비 증감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 〈표 3〉 미국 rig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구분	이번 주	지난 주	4주 전	전년동기	고점	최근 저점
	2018-03-09	2018-03-02	2018-02-09	2017-03-10	2014-10-10	2016-05-27
원유 재고	796	800	791	617	1,609	316
쿠싱지역 재고	_	-4	5	179	-813	480
원유 생산	188	181	184	151	1,606	81
가동률	_	7	4	37	-1,418	107

주: 증감은 이번 주 rig 수 대비 증감 자료: Baker Hughes, 한국투자증권

# [그림 11] 미국 원유 재고

#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 [그림 12] 미국 산유량 및 rig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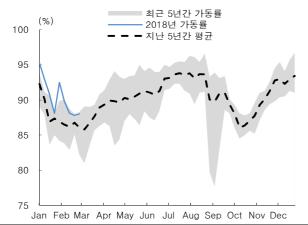
자료: Bloomberg, EIA, 한국투자증권

# [그림 13] 미국 휘발유 재고

# (백만 배렬) 최근 5년간 휘발유 재고 2018년 휘발유 재고 245 230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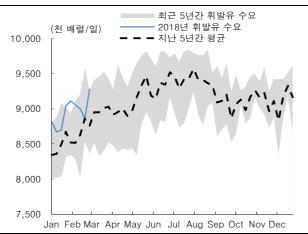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 [그림 15] 미국 정유시설 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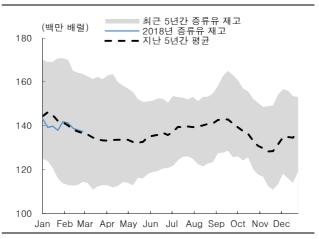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 [그림 17] 미국 휘발유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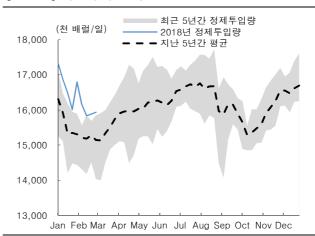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 [그림 14] 미국 증류유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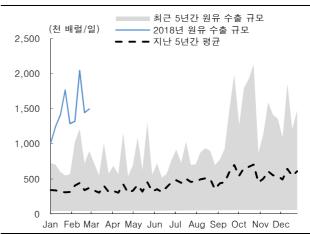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 [그림 16] 미국 정제투입량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 [그림 18] 미국 원유 수출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 귀금속: 보합세를 나타낸 금 가격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월 미국 임금 상승률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금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은(+0.9%), 금(+0.0%)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팔라듐(-0.5%), 백금(-0.1%)은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주 목요일 ECB는 통화정책성명서에서 양적완화 재확대 요건을 삭제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드라기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물가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강조했으며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1.4%로 0.1%p 하향조정했다. 이로 인해 금 가격은 하락했지만 미국 고용지표 발표후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금 가격은 다시 상승했다. 2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이 31.3만명 증가하면서 2016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시간당 임금이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면서 상승률이 둔화된 점이 달러 약세를 야기했다.

# [그림 19] 금, 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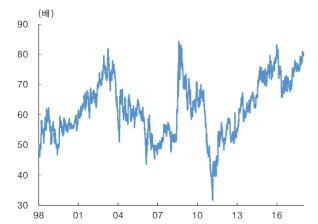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그림 20] 백금, 팔라듐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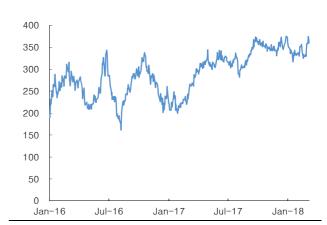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그림 21] 금/은 ratio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그림 22] 금-백금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그림 23] 금 투기 포지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그림 24] 은 투기 포지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그림 25] 백금 투기 포지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그림 26] 팔라듐 투기 포지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그림 27] 금 ETF 금 보유량 및 금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그림 28] 은 ETF 은 보유량 및 은 가격 추이



# 비철금속: 무역 전쟁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비철금속 가격은 하락

달러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철금속은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납(-4.5%), 아연(-3.7%), 알루미늄(-2.0%), 니켈(-1.3%), 전기동(-0.9%)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주석(+0.3%)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주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서명했다. 비록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되었고 오는 23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EU가 이에 대해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로 인해 철강 및 알루미늄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철금속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 [그림 29] 전기동, 알루미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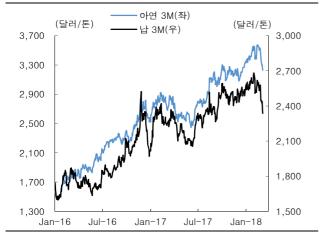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그림 30] 니켈, 주석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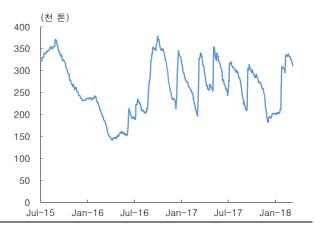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그림 31] 아연, 납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그림 32] LME 전기동 재고 추이



# 〈표 4〉 주요 원자재 ETF

구분	ETF명	시총 (백만 달러)	일평균거래대금 (백만 달러)	종가 (달러)	1W (%)	1M (%)	3M (%)	YTD (%)	기초지수	운용보수 (%)	추적 오차	레버 리지
원유	UNITED STATES OIL FUND LP	1,857	234	12.47	0.8	5.1	8.5	3.8	WTI			-1/1
	IPATH S&P GSCI CRUDE OIL TR	613	13	6.88	1.2	7.0	12.1	5.2	SPGSCLTR	0.75	7.6	_
	UNITED STATES 12 MONTH OIL	81	1	21.57	1.5	5.9	7.5	3.1	WTI	0.79	_	_
	PROSHARES ULTRA BLOOMBERG	411	71	25.04	1.9	10.9	17.1	6.8	BCOMCL	0.95	27.5	Long X2
	UNITED STATES SHORT OIL FUND	11	0	54.34	-1.1	-5.5	-8.8	-4.3	WTI	0.75	_	Short X1
	PROSHARES ULTRASHORT BLOOM	210	40	22.13	-2.8	-11.4	-18.2	-9.9	BCOMCL	0.95	84.6	Short X2
	TIGER 원유선물(H)	93,720	1,193	4400	-1.1	0.1	6.9	1.4	SPGSCLP	0.70	16.7	_
	TIGER 원유인버스선물(H)	8,540	121	10675	0.9	-0.4	-7.9	-2.8	SPGSCLP	0.70	47.9	Short X1
	US NATURAL GAS FUND LP	393	120	22.74	0.7	3.2	2.8	-2.5	Natural Gas	1.27	_	_
천연가스	VELOCITYSHARES 3X LG NAT GAS	574	246	59.7	1.8	11.1	-7.4	-17.9	SPGSNGP	1.65	70.8	Long X3
	VELOCITYSHARES 3X INVERSE NA	177	198	27.49	-2.5	-11.7	-22.6	0.0	SPGSNGP	1.65	146.2	Short X3
석탄	VANECK VECTORS COAL ETF	104	2	16.52	-2.7	-0.8	8.8	3.1	MVKOLTR	0.59	4.1	_
	ENERGY SELECT SECTOR SPDR	17,651	1,093	68.45	2.2	2.7	-1.2	-5.3	IXETR	0.13	0.5	_
	VANGUARD ENERGY ETF	3,941	32	93.62	2.1	3.1	-1.1	-5.4	M5US5ENI	0.10	0.3	_
에너지	SPDR S&P OIL & GAS EXP & PR	2,196	595	34.77	1.8	7.3	-1.5	-6.5	SPSIOPTR	0.35	0.5	_
기업	ISHARES U.S. ENERGY ETF	982	26	37.49	2.1	3.0	-1.1	-5.4	DJUSENT	0.43	0.5	_
	ISHARES GLOBAL ENERGY ETF	1,176	11	33.93	1.6	2.4	-1.9	-4.6	SPG12CEN	0.47	1.5	_
	POWERSHARES DB PREC METALS	178	2	38.74	0.1	0.7	5.6	0.6	DBCMYEPM	0.78	1.8	_
귀금속	ETFS PHYSICAL PRECIOUS METAL	380	2	64.89	0.2	1.1	5.1	-0.2	GLTRI	0.60	6.2	_
-	SPDR GOLD SHARES	35,478	1,033	125.54	0.1	0.6	6.0	1.5	GOLDLNPM	0.40	4.1	_
	ISHARES GOLD TRUST	11,273	150	12.7	0.2	0.6	5.9		GOLDLNPM	0.25	4.1	_
금	ETFS PHYSCL SWISS GOLD SHRS	1,120	7	128.05	0.0	0.6	6.0	1.5	GOLDLNPM	0.39	4.0	_
	VELOCITYSHARES 3X LONG GOLD	118	9	11.43	0.2	1.2	16.8	2.6	SPGSGCP	1.35	22.5	Long X3
	KODEX 골드선물(H)	55,832	649	9795	-0.3	-0.4	4.6	1.1	SPGSGCTR	0.68	6.0	_
	VANECK VECTORS GOLD MINERS	7,669	944	21.57	0.4	-0.5	-0.5	-7.2	GDMNTR	0.52	3.7	_
	DIREXION DAILY GOLD MINERS	1,275	192	23.2	0.7	0.8	-7.9	-26.8	GDM	0.95	46.3	Long X3
금광업체	DIRXN DAILY JR BULL GOLD 3X	794	196	13.25	-0.8	8.1	4.8	-25.4	MVGDXJTR	0.95	49.3	Long X3
	DIREXION DAILY GOLD MINERS	258	130	27.73	-1.3	-5.5	-8.4	17.0	GDM	0.95		Short X3
-	ISHARES SILVER TRUST	5,274	134	15.63	0.4	1.6	4.5	-2.3	SLVRLN	0.50	10.9	_
	ETFS PHYSICAL SILVER SHARES	331	3	16.17	0.4	1.6	4.6	-2.1	SLVRLN	0.30	10.9	_
은	PROSHARES ULTRA SILVER	228	5	32.13	0.9	2.9	8.0	-5.1	SLVRLN	0.95	25.3	Long X2
	VELOCITYSHARES 3X LNG SILVER	259	32	10.47	1.3	3.9	10.6	-9.8	SPGSSIP	1.65	38.7	Long X3
	KODEX 은선물(H)	24,993	186	3845	-0.1	0.3	3.5	-2.2	SPGSSITR	0.68	9.4	_
은광업체	GLOBAL X SILVER MINERS ETF	402	5	30.45	1.7	5.8	1.8	-6.7	SOLGLOSI	0.65	2.7	_
백금	ETFS PHYSICAL PLATINUM SHRS	546	5	91.73	-0.3	0.0	8.2	3.7	PLTMLNPM	0.60	6.9	_
팔라듐	ETFS PHYSICAL PALLADIUM SHAR	237	3	94.74	0.1	1.7	-1.4	-6.7	PLDMLNPM	0.60	11.4	_
	POWERSHARES DB BASE METALS	361	5	18.78	-0.8	0.2	5.6	-3.2		0.82	2.1	_
1247	IPATH BLOOMBERG COPPER SUBIN	72	2	35.49	0.3	2.8	5.6		BCOMHGTR	0.75	2.0	_
전기동	TIGER 구리실물	8,272	25	7040	-1.5	-1.9	1.5	-4.3	SPGSCO	0.75	8.0	_
L-10	KODEX 구리선물(H)	5,697	106	6330	-2.0	-0.7	2.1		SPGCHGTR	0.68	9.8	_
니켈	IPATH BLOOMBERG NICKEL SUBIN	15	0	16.86	2.6	7.5	29.1	9.6	BCOMNITR	0.75	7.7	
	IFATH BLOOMBENG NICKEL SUBIN		0	10.00	۷.0	1.3	∠3.1	3.0	DOOMINITO	0.75	1.1	

주: TIGER, KODEX ETF의 시총, 일평균거래대금 단위는 백만원

자료: 한국투자증권

<sup>■</sup>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sup>■</sup>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up>■</sup>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sup>■</sup>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